

# 불법사금융 업자 '이실장'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
## 1 범죄 수법

- 불법고금리대출의 중개 - 실행 - 추심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며, 대포폰·통장 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
  - (중개)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\*,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실장(불법사금융업자)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
  - (대출) 이실장은 이른바 30/55\*와 같은 초단기·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,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
- \*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
- (추심)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,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

## 2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

- (특정 연락처로 유도) 등록된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,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내세워 특정 연락처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
  - 특히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필요
- (개인정보 요구) 대출 과정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, 가족·지인 연락처를 요구
  - 대출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주변지인들의 개인정보 요구시 즉시 중단
- (원스톱 종합·전담 시스템)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\* 적극 활용

\* 신고·상담 ☎ [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] 1600-5500, [금감원] 1332, [경찰] 112

## 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## (참고)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### ① 불법 채권추심

- ▶ 피해자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 20만원을 차용(일주일 뒤 40만원 상환 조건)하기 위해, 신분증 및 차용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전송하고, 네이버 주소록을 통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제공
- ▶ 일주일 뒤 상환을 못 하자 불법사금융업자는 하루 이자 5만원씩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였고, 피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욕설로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
- ▶ 이후로도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제공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동생의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, 나아가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음

⇒ (유의사항) 가족·지인의 연락처,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, 불법추심 피해(우려)발생시 금감원·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을 활용

### ② 불법사금융업

- ▶ 자영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중에 있던 피해자는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상황에서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중인 대부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음
- ▶ 잠시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이 왔고, 피해자는 등록대부업체인 줄 알고 원금 100만원을 차용(일주일 뒤 180만원 상환 조건)하면서 차용증 및 신분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을 전송
- ▶ 피해자가 원금 일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“온갖 방법을 동원해 추심하겠다”는 등의 협박을 하며 불법추심을 예고

⇒ (유의사항)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\*하고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자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·경찰에 제보

\* (확인방법) 파인(fine.fss.or.kr) → 금융회사 →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